

# 익산시 정부예산 7181억원

### 전년대비 565억원 증가... 반영 규모 역대 최고치 국회 대응체제 전환, 추가 예산 확보 기대감 쑥쑥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익산시 정부예산안 반영 규모가 7,181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 경신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지난해 정부예산안 6,616억원보다 56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하반기 공모사업과 국화단계에서 추가 확보할 사업 등이 더해지면 올해 국가예산 7,152억원을 훌쩍 넘겨 5년 연속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28개 사업, 243억원 규모이며, 계속사업은 301개 사업, 6,938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활력을 위한 신산업 미래 성장 동력사업으로 ▲홀로그램 소재 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총사업비 300억원) 15억원, ▲농물음 의약품 효능

안정성평가센터 구축(총사업비 250억원) 60억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능성식품 제형기술 기반구축사업(총사업비 176억원) 69억원 등이 확보됐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됐다.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총사업비 799억원) 64억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총사업비 1,466억원) 82억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총사업비 559억원) 77억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일자리와 연계한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고용안정 safety bet 구축사업(총사업비 400억원) 81억원,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2조 6,694억원) 354억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 개설사업(총사업비 3,500억원) 109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총사업비 4,946억원) 296억원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총사업비 557억원) 57억원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 지난 8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10년간 41.4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생산유발효과가 6,589억원, 1만1,41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돼 잠재된 농업SOC 분야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500만 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총사업비 3,418억원) 59억원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총사업비 214억원) 28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확산사업(총사업비 250억원) 10억원, ▲백제왕궁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 조성(총사업비 100억원) 12억원 등이 추가됐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시의회의(의장 정길수)가 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 추경안 · 의원발의 등 16건 처리

### 군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중점

군산시의회의(의장 정길수)가 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4회 추경안 및 의원발의 4건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4차 추경안안 규모는 제3회추경 1조5,139억2,600만원 보다 537억2,700만원(3.55%)이 증액된 1조5,676억5,300만원으로(일반회계 1조3,994억5,200만원과 특별회계 1,682억100만원)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3차 추경편성에 대한 국회 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을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국외의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여비 등을 세출구조조정 하고, 지방세 감소 대응을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성곤·설경민·배형원·김종신·한안길 의원

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성곤 의원은 조촌동 주민센터 건립 촉구 및 (구)페이퍼코리아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에 있어 군산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와 재정운용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군산시의 철저한 자연재해 대비 및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권면했다. 김종신 의원은 철새조망대를 금강자연생태공원과 어울리는 자연생태학습관으로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잘못된 시설에 있어서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길수 의장은 "코로나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임시회 운영을 최소화하게 됐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작은 관심과 배려로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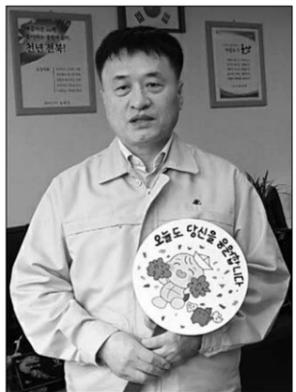
### 군산시, 자살예방 방송캠페인 ‘괜찮나’ 챌린지 진행

군산시보건소가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한 방송캠페인 ‘괜찮나’ 챌린지를 진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보건소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17회 세계자살예방의날(9월 10일)을 맞아 1일부터 15일까지를 자살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생명사랑 작은 관심 ‘괜찮나?’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는 지난 2008년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에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오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이 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괜찮나’라는 작은 관심과 배려로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번 사업은 TV방송을 통한 생명사랑캠페인과 인스타그램, SNS를 이용한 ‘괜찮나?’ 챌린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괜찮나?’ 챌린지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작은 관심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캠페인의 취지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보건소가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한 방송캠페인 ‘괜찮나’ 챌린지를 진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 군산시, 나운 주공4단지 공가 세대 ‘그린 리모델링’ 추진

군산시가 나운 주공4단지 공가세대 해결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나운 주공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 소형평형 기피현상으로 빈집이 장기간 발생해 왔다.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 및 공가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11에 요

청해 세대통합 및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주택 36세대를 공급받게 됐다. 군산시는 빈집(26㎡) 2세대를 하나로 통합(52㎡)해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리모델링(26㎡) 공사를 통해 대학생 및 소년소녀가장에 우선 공급할 예정으로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사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주요 내용으로 생활편의를 위해 수납강화 및 주방기구 확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보일러 및 전등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벽지등은 친환경 자재로 마감한다. LH는 9월중에 군산 시로부터 행위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수하고 11월중 사업 완료후 연내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전액 국비와 LH사업비로 추진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코로나 대응 일정 조정

익산시의회의가 2일 제23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익산시의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당초 9일에서 7일로 조정해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상점 안전을 심의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안사업 해결에 일조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는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등한 의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회의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본회의 등 각종 회의 인터넷방송을 시범 운영한다.

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각 상임위 회의실에 비말차단용 가림막을 설치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과 집행부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코로나19 방역 강화 익산시내버스 감축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감축해 운행한다.

시는 2일 시내버스 차량 관리와 방역을 위해 시내순환 4개 노선과 좌석버스 2개 노선을 포함한 총 27대를 운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평일 방학기간 동안 중단된 100번(1대), 102(2대), 104번(2대), 107번(1대), 111번(1대), 333번(2대)이며 오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다시 임시 운휴에 돌입한다.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에 운휴 중인 38번(1대), 39번(1대), 48번(1대), 61번(1대), 65번(1대), 100번(3대), 102번(2대), 104번(2대), 107번(2대), 111번(1대), 222번(1대), 333번(2대) 노선은 오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휴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익산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휴를 결정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순환 배차로 차량소독을 강화하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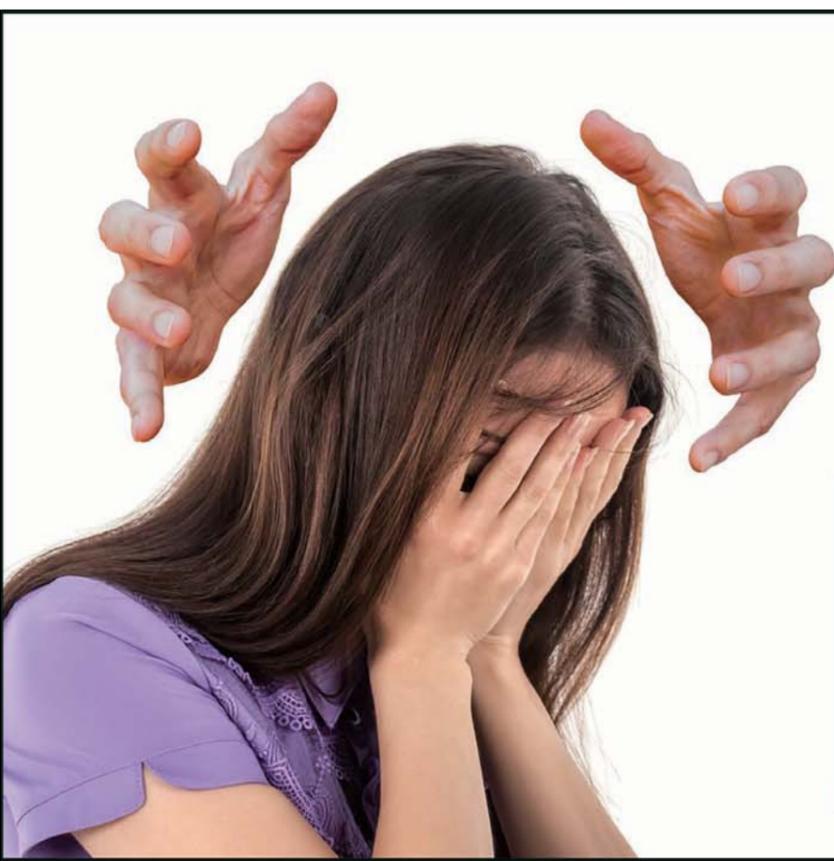
### 익산시 태풍 비상체제 돌입

익산시가 제9호 태풍 ‘미삭’이 북상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1일 행정안전부 주관 영상회의의 참관 후 유희숙 부시장 주재로 상황관리회의를 실시해 부서별 태풍대비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유 부시장은 계속되는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위험지구,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과 사전대피 상황을 점검해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풍에 취약한 옥외건물, 현수막, 태양광시설, 타워크레인 등 시설물 안전대책과 지난 집중호우 시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배수로, 하수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